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25.05.14.(수)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수렴 … “국민 생존권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

오늘(5/14),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MBK앞 천막 농성장 방문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촉발한 대규모 고용·생계 위기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매장폐점 및 자산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직영노동자 2만여 명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등 10만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국민연금에도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는 5월 14일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관련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간담회는 MBK파트너스 본사 앞 홈플러스 천막농성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어기구·유동수 국회의원(잘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받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대위는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입점업체-국회-MBK 협의체 구성 ▲홈플러스 회생계획 제출기한(6월 12일) 연장 ▲입점업체 정산일정 단축(현재 최장 30~60일) ▲국회

차원 청문회 개최 ▲투기자본 규제입법 추진 등 제안사항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박석운 공대위 상임대표는 “회생계획 제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0만 명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회장과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도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을 호소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주주 MBK와 김병주 회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국회출석 요구마저 거부하는 태도는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며, 국민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사진]

무교동낙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 – 더불어 민주당
간담회 및 대선요구안 전달식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5시 장소 홈플러스 농성 천막 주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MBK 처벌
사모펀드 규제법 제정
MBK-홈플러스 국회 청문회 개최
노사정 협의테이블 구성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
21대 대선 요구
1. MBK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및 회생계획서 제출안 사전 검토 요구
2. 정부·감독기관에 대한 긴급 조치 촉구